

News

집값 상승세, 백약이 무효...대출 제한·금리 인상 악발 안 들어

시사뉴스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7주 연속 최고치 유지... 상위 20% 주택가격 평균 15억원 초과
금통위 관계자,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임을 언급... 코로나 상황과 금융 불균형 위험 등을 점검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 언급

中企·은행권 차례로 만나는 고승범...대출만기·이자유에 재연장될듯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차례로 만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방안 논의
은행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 높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환경이 최악이기 때문... 정치권 압박도 존재... 추석 전에 재연장 여부 확정한다는 계획

인터넷은행에 온투업자 가세... '중금리대출' 전쟁 막 올랐다

서울파이낸스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사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마쳐... 정식 업체로 등록된 곳 32곳
저마다 1, 2금융권 사이의 1.5금융을 목표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설정...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함께 2금융권보다 더 저렴한 수준 대출 선보여...

금융그룹 역대급 실적에도 '자린고비' 경영 왜?

데일리안

금융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례없는 수익성을 기록하는 가운데,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내는 모습... CIR 44.6%로 전년대비 6.2%p 하락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관리 중... 코로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반사이익도 사라질 가능성 높아... 금융권 긴장감으로 비용 감축에 노력 중

보험사로 몰리는 대출...삼성생명 DSR 40% 적용 '풍선효과' 차단

뉴스1

삼성생명, 신규 취급 가계대출 건에 DSR은 은행권과 동일한 40% 수준으로 관리 중... 가계대출 증가흐름이 가파르자 속도조절에 나서...
보험사로도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기 때문...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채권 잔액은 126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

카카오페이 "관련된 요건 모두 준수 중...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아시아경제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관련 금융당국의 판단에 제도적 요건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고 입장 표명... 사실상 현재 서비스 유지하겠다는 입장
카카오페이 앱 내 이루어지는 펀드 투자는 카카오페이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 전개 중임을 피력

신한금투 등 3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한투증권 등 5곳 본허가

헤럴드경제

신한금투,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받아... 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엘지씨엔에스는 본허가 승인
금융위, 다른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절차 진행하고 신규 허가 신청 매월 접수할 계획임을 언급

토스증권, 300만명 모은 '주식1주 선물' 시즌3 시작

뉴스1

토스증권, '주식1주 선물받기' 시즌 3 시작... 올 상반기 두 차례의 이벤트 성공에 따라 준비한 세 번째 행사
추첨방식이 아닌 무조건 1주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호응 높아...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 경험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